

안녕하세요 알파벳 개발자 김태훈입니다.

알파벳은 올해 초에 시작해서 5월까지 진행되었던 프로젝트로, 최초에는 아주 간단한 서비스 몇 가지만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요구사항이 추가되었고 잦은 리팩토링을 거쳐 현재의 모습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왔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려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글은 중구난방에 주제를 벗어나 탄소리(💩)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디스크라이머 추가(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썼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용어

기술 부채: 기능을 급하게 추가해서 효율적이지 않은 코드로 생산한 기술, 언젠가는 고쳐야 해서 부채라고 함

FE: 쉽게 말하면 디자인

BE: 개발자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의 안보이는 부분(기술 부채가 주로 쌓이는 장소)

리팩토링: 다시 고친다는 의미

시작은 정말 별거 없었습니다. 졸작은 해야하고 마땅한 아이디어는 없고, 머신러닝이나 블록체인은 하기 싫고(아겨겨의 그냥 복붙임ㅋㅋ)

그러다 우연히 깃허브 프로필에 뱃지를 달고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뭔가 깃허브에 뱃지달고 있는 모습이 그냥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신기해보여서 살펴보는데 개발자가 대학생이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본 건 죄다 로컬에서만 돌아가는 장난감들이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앱을 대학생이 개발했다니 충격이었네요

“어떻게 했을까,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프로젝트를 보는데 뭔가 해볼만하고 쉬워보였습니다.

적당히 원리를 살펴보다보니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 정리가 되더라구요

(이건 나중에 카카X 2차 시험에 출제됩니다 근데 저는 2차 광탈했음ㅋ)

이렇게 결심하고 필요한 기술들 적당히 모아서 공부하고 바로 서비스를 올렸습니다.

물론 급하게 올린 서비스다보니 따라오는 기술부채가 어마어마 했습니다.

컨트롤러 구성은 조잡했고, 검색 알고리즘은 끔찍했습니다.

DB는 없었고, 데이터는 하드코딩으로 넣었습니다.(그만큼 급하셨다는거지...)

혹시 스파게티 코드라는 말을 아시나요? 똥같은 코드를 스파게티라고 부르는데, 저는 제가 개발자가아니라 요리사라는 사실을 이때 알게됩니다 ㅎㅎㅎ(철아 없었죠 요리가 좋아 개발자를 했다는게....)

이정도 기능에 이정도 리팩토링은 사실 거뜬했습니다.

기능이라고 해도 별게 없어서 리팩토링은 날잡고 몇 주 하면 끝나는 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졸작은 이렇게 금방해서 다했다고 말하면 기능 추가하라고 요구사항이 쏟아집니다.

이걸 몰랐던 저는 loop(다했어요! -> 이거 추가 -> 다했어요 -> 저거 추가) 무한 반복에 빠지게 됩니다. (OMG)

기능을 하나 추가할때마다 요리사로 전직한 저는 기술부채로 유통 각을 뺏습니다.(받아라 똥코드!)

기능이 쏟아져 들어와서 리팩토링,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산더미로 쌓였는데, 꼴에 OOP와 RDB 하나만 배워도 어려운 거대한 두 담론 위에 올려진 ORM을 건드려서 진입장벽은 이미 대학교 수준을 떠났습니다.)

DB는 빌드마다 날아다니고, FE(디자인)는 옆집 흰둥이가 대신 했다해도 믿을 만큼 조잡한데, BE는 코드로 졸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알고리즘 동아리라 알고리즘 관련한 글 한줄 남깁니다
재미로 □□□□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